



역사와 전통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고창군의 대표축제이자 '2016 문화관광 유망 축제'인 '제43회 고창모양성제'가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 고창모양성제 '대장정'

### 내일부터 9일까지... 거리퍼레이드·답성놀이·강강술래 등 마련

역사와 전통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고창군(군수 박우정)의 대표축제이자 '2016 문화관광 유망 축제'인 '제43회 고창모양성제'가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고창모양성제는 조선 단종 원년(1453년) 왜침을 막기 위해 호남과 제주도민이 힘을 모아 축성한 축성 정신을 기리고 전통문화를 보존 전승하기 위해 열리는 축제다.

올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된 고창모양성제는 군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늘리고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행사를 마련했다.

모양성제 거리퍼레이드, 답성놀이, 강강술래 등 주민참여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풍부한 문화 콘텐츠를 통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전통 문화를 보존·전승해 모양성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

축제 첫날 오후 3시부터는 '모양성제 거리퍼레이드'가 고창실내체육관을 출발해 고창군청과 터미널을 경유해 고창읍성까지 펼쳐지며 출정행렬기와 공군군악대가 조선시대 복식을 갖춘 고을 기기수단, 수문장, 취타대, 현감행차기, 호위군과, 원님 가마, 그리고 읍면 농악단 및 군민과 관광객들이 가장행렬에 참석해 축제의 흥을 고조시킬 예정이다.

또한 조선시대 호남지방의 방어를 위해 총화축성한 모양성의 축성정신을 기리기 위해 축성 자치단체장을 초청(1광역시, 3도, 13시군)해 열리는 도·시·군기 올림 행사도 개최된다.

축제 기간 동안 모양성 내에 위치한 객사, 작정, 향정, 옥사 등 주요 건물을 중심으로 다도체험, 옥사체험, 전통혼례체험 등 다양한 전통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조선시대 읍성을 지키던 군사들의 교대의식인 수문장교대식과 시간을 알리던 경점시보의식 등

을 재연하는 한편 체험 장비 전시와 할 소기, 전통식량 시식 등을 통해 병영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전통역사문화축제의 명성에 맞게 행사장 주변을 초가부스로 조성해 축성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특색 있는 공간 조성을 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짚신·미투리 만들기, 서예체험과 천연염색, 비누공예, 조각공예 등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특히 올해 축제에선 활쏘기 등 전통놀이 체험과 천연염색, 사진촬영대회, 모양성 그리기, 청소년 락페스티벌, 한복·오반 체험, 집투시량 시식을 비롯해 농산물직거래장터와 먹거리 장터 등이 마련돼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한 축제로 꾸며진다.

군은 그간 축제 시장 홍보에 만전을 기해 인근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포스터를 부착하고 리플렛 배부 등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을 재연하는 한편 체험 장비 전시와 할 소기, 전통식량 시식 등을 통해 병영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전통역사문화축제의 명성에 맞게 행사장 주변을 초가부스로 조성해 축성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특색 있는 공간 조성을 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짚신·미투리 만들기, 서예체험과 천연염색, 비누공예, 조각공예 등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특히 올해 축제에선 활쏘기 등 전통놀이 체험과 천연염색, 사진촬영대회, 모양성 그리기, 청소년 락페스티벌, 한복·오반 체험, 집투시량 시식을 비롯해 농산물직거래장터와 먹거리 장터 등이 마련돼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한 축제로 꾸며진다.

군은 그간 축제 시장 홍보에 만전을 기해 인근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포스터를 부착하고 리플렛 배부 등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에서 관광주간을 운영해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한다.

# 고창군, 관광객들 위한 관광주간 운영

### 9일까지 관광지 무료 순환버스 이용·입장료 특별할인

고창군(군수 박우정)에서 관광주간을 운영해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9일까지 '고창 관광주간'이 운영됨에 따라 관광객들은 고창군의 주요 관광지를 무료 순환버스를 이용해 이동하고 입장료와 이용료를 특별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순환버스는 고창읍성 인근에 위치한 농특산물판매장에서 출발해 석정휴스파를 순환하는 1코스를 1일 9회 운영하고 고인돌박물관, 선운산도립공원을 순환하는 2코스를 1일 5회

운영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교통 편의로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길을 제공할 수 있도록 1일 2개 코스를 운영된다.

특히 5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제43회 고창모양성제' 기간에는 고창읍성, 판소리박물관이 무료로 운영되며 고창읍성 답성놀이를 체험한 관광객들에게 고인돌박물관 50%, 석정휴스파 50%, 석정힐링카운티 30%, 만돌·하전 갯벌체험장 20% 등 입장료 및 이용료를 할인 받을 수 있어 답성놀이로 건강 찾고, 관광지 할인

혜택까지 일거양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고인돌유적지와 도시 전체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세계 최고의 자연생태도시 고창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준비했다"며 "무료로 이용되는 순환버스와 관광지 할인혜택 등을 꼭 이용하여 더 알차고 즐거운 고창여행을 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 용남시장, 골목형시장 육성 착수보고회 열려

용남시장의 개성과 특색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착수보고회가 지난달 30일 상인회,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월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특성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화환경조성, 디자인 특화지원, 문화·ICT지원, 상품특화지원, 교육 및 이벤트행사·홍보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왔다.

용남시장은 본 사업을 통해 기존시장의 판매품목을 활용한 특화상품개발과 시장을 상징할 캐릭터 및 MI 디자인개발과 함께 시장특색과 실질적인 판매환경에 맞는 매대 제작을 통해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더불어 복합문화공간의 구성으로 기존 고객층과 연결하여 교육, 문화, 체험 활동이 가능한 정보와 소통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방문객과 상인을 연결하는 시장의 거점공간을 형성하고, 시장축제, 상인기획단 및 동아리를 운영하여 여가활동을 통한 상인과 지역민의 공동체 관계망을 형성하여 골목형 시장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여러 행사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용남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용남시장만의 개성과 특색을 발굴해 특화시장으로 육성하여 특색있는 전통시장으로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용남시장의 개성과 특색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착수보고회가 지난달 30일 상인회,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월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특성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화환경조성, 디자인 특화지원, 문화·ICT지원, 상품특화지원, 교육 및 이벤트행사·홍보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왔다.

용남시장은 본 사업을 통해 기존시장의 판매품목을 활용한 특화상품개발과 시장을 상징할 캐릭터 및 MI 디자인개발과 함께 시장특색과 실질적인 판매환경에 맞는 매대 제작을 통해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더불어 복합문화공간의 구성으로 기존 고객층과 연결하여 교육, 문화, 체험 활동이 가능한 정보와 소통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방문객과 상인을 연결하는 시장의 거점공간을 형성하고, 시장축제, 상인기획단 및 동아리를 운영하여 여가활동을 통한 상인과 지역민의 공동체 관계망을 형성하여 골목형 시장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여러 행사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용남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용남시장만의 개성과 특색을 발굴해 특화시장으로 육성하여 특색있는 전통시장으로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경찰, 인삼 절도예방 비상근무



# 순창경찰, 인삼 절도예방 비상근무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는 팜 홀려 재배한 인삼이 수확기에 접어들자 인삼경작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절도예방 활동을 실시, 내 고장 인삼지킴이에 앞장서고 있다.

순창군에는 북흥면 지역이 순창지역 인삼재배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확기에 접어들어 인삼을 지키기 위해 연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인삼경작자를 대상으로 세밀한 특별방범진단을 실시하고, 약 20개의 인삼재배지를 1개의 단위로 묶어 여러 개의 순찰 노선 지정, 이에 따른 순찰 순찰과 불규칙적 위력순찰 및 목검문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인삼절도 예방을 위한 사전 분위기 제압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인삼 경작자들에게 재배지 주변에 대한 가정용 CCTV설치 등의 홍보 및 야간시간대에는 인삼밭 진입로에 로드블로킹을 실시하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아울러 설치토록 지속 홍보 중에 있다.

변용상 북흥파출소장은 "순창군 지역 중에서도 북흥지역이 인삼재배 면적이 가장 많은 만큼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농축산물 범죄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 임실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 만 65세 이상 등 대상

임실군은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오는 6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군 보건의료원은 7천260여명을 대상으로 접종일을 지정, 일시에 몰리는 현상이 없도록 시기를 분산해 대기시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무료접종은 만 65세 이상,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영아, 사회복지시설생활자, 기초수급생활권자, 국가유공자, 이민자 등이며 생후 12개월~36개월 미만 7,000원, 36개월 이상~성인은 7,500원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실시하고 신분증,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증 등을 지참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영아 무료 접종은 4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다사랑의원'에서, 노인 접종은 관내 13개 의료기관에서 오는 11월 15일까지 진행한다. /임실=진홍철 기자

군 관계자는 "우선접종권장 대상자는 본격적인 유행 발생 전인 10월부터 12월 사이 접종을 권장한다"며, "올해는 충분한 양의 백신이 확보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약 2주 정도가 소요되며, 통상 6개월가량 면역효과가 지속될 것"이라며, "예방을 위해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휴지나 옷깃으로 입을 가리고 자주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13개소는 의료법인이투의료재단임실병원, 임실중앙요양병원, 우리가정의원, 다사랑의원, 한사랑의원, 전주가정의원, 임실내과의원, 소망가정의화과의원, 관촌외과의원, 이영순내과, 열린가정의화과의원, 우리가정의화과의원, 현대마취통증의화과의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640-3126)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철 기자

# 남원시, 수렵장 운영 준비 박차

남원시가 2016년 동절기 수렵장 운영을 결정하고 접수 및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운영기간은 2016년 11월 20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이며, 올해는 도내 3개 시·군(남원시, 정읍시, 완주군)이 수렵장을 운영한다.

이에 남원시는 지난 9월 27일(화)부터 수렵장 사용자 임금 및 서류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정원은 적석(50만원권) 275명, 청석(20만원권) 510명으로 총인 785명이다. 수렵장 참여를 원하는 업체 분들은 선입금 후 관련서류를 환경과로 제출해야 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4일까지다. 차후 인원이 마감되지 않을시 2차 고시를 할 예정이며, 그 일시는 10월 10일부터 3일간이 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지역 축제 벤치마킹 다녀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정환)는 최근 김제 지평선 축제와 정읍 구절초 축제장을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총무위원회는 남원의 대표적인 축제인 춘향제와, 흥부제 등과 지역 축제를 비교·분석하여 축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남원시는 올해 제86회 춘향제 행사를 5월 중에 성황리 마쳤다. 그러나 춘향제 결과보고에서 축제의 컨셉과 방향성이 모호하고 프로그램 구성이 산만하며, 행사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의 부재하고, 춘향제 상품 개발 필요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춘향제가 내년엔 더욱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벤치마킹 결과 춘향제는 행사를 위한 상설공간과 시설이 없어 매년 수백 개의 몽골텐트를 설치함으로써 축제의 품격을 떨어뜨림으로 남원예천

2지구와 춘향테마파크 등 관광투 주변에 평상시에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쉼터로 활용하고 춘향제 행사기간에는 상설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행사관련 조정시설과 안내 표지판을 행사 주제에 맞게 디자인해서 행사 몰입도를 높여야 한다. 막걸리 홍보관 등 소재에 맞춰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마련도 필요하다.

정읍 구절초 축제장은 옥정호 주변 야간에 막걸리를 제공하고 구절초, 코스모스, 해바라기를 심어 수려한 자연공간을 관광자원화 하였다. 정읍의 성공 사례는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파우 공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 사업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김정환 총무위원장은 "김제 지평선 축제와 정읍 구절초 축제를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지역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좋은 점은 우리 지역 축제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노인의 날 기념행사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달 30일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2층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심민 군수를 비롯해 문영두 군의장, 유공표창자, 기관단체장, 노인회임원, 경로당 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회장 낭독, 유공자 표창,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임실문화원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의 식전 공연과 초대 가수 축하공연이 열려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임실을 한강순(74세)씨 외 11명은 지역사회에 숭순수범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권익증진에 앞장서 노인의 활동영역을 넓히는 공로로 군수표창을 수상했다.

심민 군수는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의 풍요롭고 인락한 생활은 어르신 여러분의 희생과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공경 받고 안정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철 기자